

#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 시, 익산역에서 자치도 등과 캠페인... 답례품 발굴 선택 폭 확대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올해 답례품 선택지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독려할 방침이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 시장은 지난 8일 익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홍보하고, 기부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과 최중오 익산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함께했다. 이 밖에도 익산도시관리공단, 농협 익산시지부, 시민단체 등 80여 명이 자리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5억9,046만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액인 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모두 4,654건으로 건당 모금액은 평균 13만원 가량을 기록했다.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가 4,079건(8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지별로 보면 전북 1,358건(35.8%), 경기 867건(18.2%), 서울 740건(16.1%), 경북 657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답례품은 익산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인 탐마루협동조합의 탐마루 쌀이었다. 전체의 23.2%인 906건이 탐마루쌀을 답례품으로 선택해 받았다.

이어 삼가농협의 날씬이 고구마가 430건(11.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농축산물꾸러미(한동) 425건(10.9%), (주)하림산업 더미식산물세트 267건(6.8%), (주)나리산 갯김치 222건(5.7%) 순이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최근 팔봉동의 한 요양원을 방문해 올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 익산시 효도 공무원이 찾아간다

###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 ... 2019년부터 꾸준히 호응

익산시가 최근 팔봉동의 한 요양원을 방문해 올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은 익산시가 노인 공경을 통한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도입한 제도다

공무원이 월 1~2회 마을회관 등 경로 시설을 방문해 시정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노래와 율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즐거운 시간을 공유한다. 주민을 만나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섬김을 몸소 실천해 꾸준

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은 어르신들과 소소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며 소통할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한 효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폐지수집 노인 지원 위한 맞춤형 전수조사

### 시·읍면동, 노인일자리참여기관 합동 폐지수집 노인 현황 파악 1:1 면담... 보건복지·노인일자리사업 등 개별 필요서비스 지원

익산시가 이달부터 3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지역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각 지역별 고물상과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 맞춤형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각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고 세부 욕구 조사(종합점검, 소득지원,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읍면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를 지자체 발굴 위기가구로 분류해 별도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확보한 명단

을 바탕으로 1:1 면담을 실시, 폐지수집 노인의 역량·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가 시청과 읍면동,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명절 이후 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폐지수집 노인의 정확한 현황과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홍역 예방 위한 감시 강화

익산시 보건소가 홍역 바이러스 유입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 보건소는 최근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 유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8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한 달여 만에 5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

능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국내 환자 5명 모두 해외 유입에 따라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 개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학교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 홍역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홍보,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이다. 7~21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발진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과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만큼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구강 내 병변 등이며,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전에는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

군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5만원의 생생카드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3억7,95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받으며, 지원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여성 농업인이다

다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농외소득 연 3,700만원 미만)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증 작업을 완료한 후 4월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될 경우 선정자가 정한 농업지점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지원

금액은 연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공여 행사,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수영장, 서점, 사진관, 안경점, 주유소 등 전 업종(단, 의료기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논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생산장려금 지원

군산시는 쌀 피임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논에 벼 대신 일반작물, 녹비작물 재배 또는 휴경할 경우 ha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옥수수·와하게 조사(총체비 포함)를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전작작물 직불제 지원품목인 두류와 가루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작물 중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도 지원 제외품목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23년 중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농지 중 올해 신규로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과수화상병 예방활동 철저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억제를 위해 과수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 배 등 과수와 식물이 발생하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잎, 가지 등이 화상을 입을 것처럼 병징이 나타나는데, 방제가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내더라도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병이다

특히, 나무의 껍질에서 월동 후 체내인양이 활성화되는 봄철 개화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므로 겨울철 전정작업은 화상병 확산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전정과 껍질제거가 화상병 예방의 시작"이라며 "과수농가에서는 동계계양제거 작업과 병철 개화기 사전방제시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